

국민 안전·건강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원 헬스' 강화

정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외상·응급의료체계 등 필수 의료 강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등에 주력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국민 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복지부는 "생명, 건강에 대한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면서 "튼튼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협력망을 높여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건강 위협요소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방역 전 단계 역량을 높인다. 고위험·신변중 감염병 관련 백신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결핵 후진국 탈퇴를 위해 약 50만명 대상 잠복결핵 검진,

12만명의 고위험군 검진 등을 통해 조기발견을 높이고,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지원한다. 결핵환자 전수관리 및 다제내성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의 역량을 높인다.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질 향상을 유도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무료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강화=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외상전문인력 양성, 권역외상센터의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간호사 인건비 신규 지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등을 통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활용해 재난의료인력을 교육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한다.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간 의료인력 균형을 향상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이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 등 분만 인프라를 확대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스=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신생아중환자실 단계대체를 즉시 추진한다.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수가 확대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한다.

△국민 생명·건강 위해요인 예방=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다. 암 등 국가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5대 암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판정 의사 실명제 도입 등 암검진의 국민 신뢰도를 개선한다.

하반기에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만·음주·흡연 등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범정부 대응체계 'One Health'= 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세계적 협력전략을 의미한다. 국민건강 위협요인이 다양해져 각 부처의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One Health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생 시 부처 간 건강 위험 정보 모니터링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슈 발생 시 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합동 대응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 해결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제도는 개선하고 부처 협력을 통해 사후조치, 평가 등을 한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간협, 건보공단과 신년간담회 가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정착 등 논의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상향되고, 최소 간호인력 구성 비율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병원간호사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중심 간호관리로 비중을 높이는 방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 수익이 간호사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간호 관련 수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면서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옥수의 이사장은 의료급급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대한간호협회와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상향되고, 최소 간호인력 구성 비율이 준수돼야 한다"면서 "병원간호사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중심 간호관리로 비중을 높이는 방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 수익이 간호사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간호 관련 수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면서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규국 기자 kschung@

간협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대한간호협회는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자로 정순복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지방기술서기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2월 21일 개최되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간호인상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으로 간호전문직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했거나 귀감이 될 만한 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정신을 구현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1995년부터 시상해왔다.

정순복 과장은 지난 34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정신보건, 결핵, 예방접종, 방문보건, 모자보건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힘쓰며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과 초기 정신보건사업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광주시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정순복 과장은 광주시보건간호사회장, 광주시간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간호 발전에 기여하고 간호직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에 공헌해왔다. 광주시 올해의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자랑스런 정신보건간호사상, 신지식인상 등을 수상했다.

정순복 과장 인터뷰 기사는 3월 1일자 간호사신문에 실릴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설 연휴 관계로 2월 15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수행과 초기 정신보건사업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광주시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담부서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이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1월 30일 의결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

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심의관 아래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

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은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편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특진·특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ijoo@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박현에 서울대 교수 - 오익금 연세대 교수

박현에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오익금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치의학, 영양학 등 의과학분야 석학들의 모임이다. 두 교수는 1월 25일 열린 의학한림원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박현에 서울대 교수(사진 왼쪽)는 1980년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보건통계/보건정보체계 전공 이학석사 및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SCI/SSCI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31편 및 공동저자 논문 20편을 포함해 총 220편의 논문을 출판했다. 세계간호정보학회, 세계의료정보학회, 국제표준화기구(ISO) 보건의료정보기술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와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대한의료정보학회 편집위원, Applied Clinical Informatics 부편집장, 대학학문분류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보건의료정보학회와 미국의료정보학회 회원이며, 미국간호학회 정회원(FAAN)이다.

정규국 기자 kschung@



오익금 연세대 교수(사진 오른쪽)는 1986년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미국 일리노이대(시카고)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내외 주요 전문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출판했다. 근거기반간호 플랫폼인 JBI 한국지부장으로서는 근거기반간호 활성화에 기여했다. 간호분야의 연구개발(R&D) 진흥전략을 기획 추진한 공로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편집위원, 한국간호과학회 영문학술지 Asian Nursing Research 편집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위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서비스 R&D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미국간호학회 정회원(FAAN)이다.

정규국 기자 kschung@

RNcard 사용백서

매년 대한간호협회 관련 결제가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이 캐시백 됩니다!

대한간호협회 후원사업 NURSELIFE 닥스라이프 www.nurselife.or.kr ☎ 1566-3137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체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진료소협회 (02) 2266-7677	보건교사회 (02) 527-339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31) 750-5080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